

양평 간 이재명 “고속도로 종점 변경, 국정농단 대표 사례”

“권한 맡겼더니 남용” 정권 심판 부각 여주·양평 최재관 후보 지지 호소 충청 등 ‘정권 심판 벨트’ 방문 계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총선을 앞두고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재차 부각해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인근에 땅을 보

유한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봤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당 관계자들로부터 특혜 의혹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답답한 현실이다.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권한을 맡겼더니 전혀 엉뚱한 용도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현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대통령 처가 땅 쪽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비틀어버리다 의혹이 제기되자 국책사업까지 백지화하는 무책임한 정권,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양평군청 앞에 마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에 들른 뒤 이 지역구(여주-양평) 후보인 최재관 전 지역

위원장 지지 호소 연설을 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국정 농단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며 “권력을 권력 주체인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행사하는 이런 집단들은 국민의 대리인을 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주변의 이익을 위해서,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너 머슴 잘 못했다. 너 더 이상 머슴 역할을 할 이유가 못 된다’ 해서 권력을 박탈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천 계양구)에서 맞

붙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재관 후보의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김선교 전 의원이 공천받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원희룡 전 장관도 공천받았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분들 내세워서 국민에게 심판받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냐”라고 비판했다.

최재관 후보도 “이 아름다운 땅이 왜 대통령 처가, 대통령 부부 비리로 얼룩진 땅이 되어야 하나”라며 “원희룡 전 장관과 함께 노선 변경을 함께 논의했던 김선교 전 의원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양평 방문은 서울 종로(곽상인), 서울 영등

포강(채현일), 서울 양천갑(황희)에 이은 4번째 현장 ‘지연 사격’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주-양평을 시작으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심판 벨트’ 지역구들을 방문할 계획이다.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곳은 충청권 5곳으로, 일단 다음 주에는 충남 천안갑을 찾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의혹을 부각할 예정이다. 이곳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곳이다.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출마한 충남 홍성-예산에선 ‘윤석열 심판’을, 대전 유성구에선 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집중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조국혁신당, 7·8호 인재 영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7일 서울 동작구 아너인에서 열린 7호·8호 인재 영입식에서 박은정 전 검사(왼쪽),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박근혜, 민주 ‘광주 광산갑’ 경선 승리

20개 지역구 결과 발표… ‘비명’ 박광은·강병원·윤영찬 낙선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후보 경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친명(친이재명)계 도전자들에게 대거 패배했다.

경기 수원정에서 직전 원내대표인 박광은 의원이 김준혁 당 전략기획부위원장에게, 서울 은평을 예선 강병원 의원이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에게 각각 패했다.

경기 성남중원의 현역 윤영찬 의원은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에게, 남양주을의 현역 김한정 의원은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에게 패해 공천장을 내렸다. 광주 광산갑의 경우 박근혜 당대표 법률특보가 현역 이용민 의원에게 승리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광진구에서 비명계 현역인 전혜숙 의원이 이정현 전 JTBC 앵커에게 고배를 들었다. 친문(친문재인)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박근혜 후보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에 쳐 본 선봉에 실패했다. 다만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선 ‘비명’ 신영대 의원이 ‘친명’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을 눌렀다.

서울 용산에선 강태웅 현 지역위원장이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을 꺾었다. 최기상 의원(금천), 오기형 의원(도봉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경기 용인병), 최민희 전 의원(경기 남양주갑)도 공천을 받았다. 용인병이 지역구인 현역 정중숙 의원은 부 전 대변인에 패했다. 3차 경선으로 치러진 서울 강북을에선 하위 평가 10%에 포함된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총선 브리핑

손금주 “나주 교육발전 특구 지정 등 숙원 해결”

나주·화순 예비후보

4·10 총선에서 나주·화순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손금주 전 국회의원이 나주를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하는 등 ‘나주 숙원사업 해결’ 공약을 발표했다.

손 전 의원은 7일 “나주를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해 혁신도시 특별법상 지역 인재 채용 확대 항목을 청년특별고용법 제정으로 강화하겠다”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교육기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아이 돌봄·교육이 가능한 돌봄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 정책 중심 지역 공약 실현을 위해 원도심과 혁신도시 간 교육 편차를 해소하고, 과밀 학급을 해결하겠다”며 “생활 권역별 학교자치지구 특화 프로젝트 연계, 읍·면·동 단위 권역별 학교자



손금주 후보

치지구 교육혁신 모델 등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전 의원은 이 밖에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정상화, 전남과학고 한진공대 옆으로 이전 등을 약속했다.

손 전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주, 지역 인재가 넘쳐나고 청년이 오고 싶은 나주를 위해 교육 공약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나주시 숙원사업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 전 의원은 앞서 화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과 폐광 지역 광해 방지, 퇴직자 일자리 전환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조국 바람에 … 뒤로 밀린 李李

<준석> <낙연>

비례정당 지지도, 조국혁신당 14%·개혁신당 4%·새로운미래 2%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와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1~3%대에서 정체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했다.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기대됐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탈당 정치인의 합류도 이뤄지지 않아 무당층 등이 조국혁신당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엘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민주당 29%,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2%, ‘지지 정당 없음

·모름·무응답’ 2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7.2%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전 조사 때보다 2%p씩 하락했다.

지역구 투표 정당은 국민의힘 35%, 민주당 31%, 조국신당 4%, 개혁신당 2%, 녹색정의당 1%, 새로운미래 1% 등 순이었다. 또 비례대표는 국민의미래 28%, 더불어민주당 17%, 조국신당 14%,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 각각 2% 등이었다.

앞서 전날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내일 총선이라면 지역구 의원으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조국신당을 꼽은 응답자는 3%였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을 뽑겠다는 응답은 2%였고,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를 택한 사람은 1%였다. 세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내였다.

특히 조국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광주·전라(8%), 50대(7%), 진보 성향층(6%) 등에서 평균 지지도보다 높았다.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정당투표에 대한 질문에서는 조국신당을 택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3%였으며 개혁신당은 3%, 새로운미래는 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7%였다.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3. 13(수)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푸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3. 6(수) 오후 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공계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남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공합, 맥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펜션 급매매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 건축 282㎡
- 연면적 438㎡
- 수영장 有
- 총 2개동 (객실실11개, 히노끼 욕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가능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밭(전) 1,320㎡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010-3666-6301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리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등
- 부식성,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대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기업자 표창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